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5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1~2부	00 MBC뉴스투데이1~2부	30 모닝와이드1~2부
7	00 채널A 아침뉴스 5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박근혜대통령 국회시정연설	10 좋은아침
10	00 뉴스 10 5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정기국회 시정연설 40 뉴턴의 사과나무(재) 50 TV동화 빨간자전거(재) 55 튼튼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45 TV특종 스페셜	00 국회 정기회 예산안 시정연설 40 SBS 뉴스
11	50 웰컴 투 시월드(재)	00 러브 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생생 정보통 스페셜(재)(재)	00 MBC 여성토론 위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12	50 VJ특공대(재)	00 MBC 뉴스 20 TV속의 TV	00 SBS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1	00 뉴스특보1~2부	00 연중기획 빛고을 행복아카데미		20 MBC 네트워크 특선 〈장석주의 에게해 인문학 기행 1〉	30 피우자 민들레
2		00 콘서트 필(재) 40 남도지오그래피(쟈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부부극장 콩깍지(재)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구름빵 2(재) 55 TV유치원	00 MBC 경제 뉴스 10 키즈 CSI 과학수사대 40 와우! 신나는 세계여행 베스트	10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재)
4	10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완전정복〉 55 튼튼 생활 체조(재)	25 아기 종벌레 포포(재) 55 엄마가 있는 풍경 마마도(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안녕 자두야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0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1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MBC 가요베스트	05 씨네포트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 드라마 〈루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못난이 주의보〉
8	30 그때 그 사람 스페셜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월드챌린지 우리가 간다
9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베란다쇼	
10		00 가요무대 55 문/화/산/책 포플러	00 월화드라마 〈미래의 선택〉	00 월화 특별기획 〈기황후〉	00 월화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11	00 명랑해결단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공간다큐 〈그곳〉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이영돈PD 먹거리 X파일(재) ①:20 웰컴 투 돈월드(재)	30 문화책갈피 ①:10 T타임 40 알약톡톡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해외 특별기획 드라마 〈초한지〉 ①:35 특파원 현장보고(재)	15 MBC 뉴스24 35 스포츠 특선 〈슈퍼레이스 최종전〉 50 바비킴·이루마의 TV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SBS골프

EBS

06:10 다문화 고부 열전
07:00 미술탐험대
07:15 정글북
07:30 부릉부릉 부르미즈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숲 속 친구 파파룰라
09:10 시계마을 티키톡
09:20 부모 〈농촌에 갔어요 / 공포의 미세먼지〉
10:00 한국기행
10:20 요리비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임미자의 365일 기본 반찬! 김치 담그는 날 - 배추김치〉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
13:05 지식채널e 클래식
13:10 즐거운 수학 EBSMATH
13:20 배움너머
13:30 꿀꿀 페파는 즐거워
13:45 바두와 친구들
14:00 잘난 체리우스 박사님
14:15 팅가팅가 이야기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5:00 열려라 아바다스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꼬마거북 크랭클린
15:45 와글와글 친구들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캐니멀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
16:45 숲 속 친구 파파룰라(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시계마을 티키톡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놀이터 구조대 뽀잉
18:00 미앤 마이 로봇
18:15 정글북
18:3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30 피둘리팜
19:50 모피와 친구들
20:00 EBS뉴스
20:20 요리비전
20:50 세계테마기행 〈러시아〉
21:30 한국기행 〈속리산〉
21:50 EBS 다큐프라임 〈천국의 새〉
22:45 달라졌어요
23:35 지식채널e 클래식(재)
23:40 생방송 EBS교육 대토론
24:05 다문화 〈사랑〉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일반사회〉
00:50 내신 6감 〈수학(상)〉
01:40 〃 〈지리〉
02:30 포스 〈화법과 작문〉
03:20 〃 〈독서와 문법〉
04:10 〃 〈수학Ⅰ A형〉
05:00 〃 〈수학Ⅰ B형〉
05:50 〃 〈미적분과 통계기본〉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1)〉
07:30 〃 〈Basic Grammar〉
08:20 탐스런 〈법과 정치〉
09:10 〃 〈동아시아사〉
10:00 〃 〈경제〉
10:50 〃 〈생활과 윤리(1)(2)〉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3:00 탐스런 〈생활과 윤리(3)〉
14:00 2015 수능 스타트 〈수학 A형(1)〉
15:00 〃 〈수학 B형(1)〉
16:00 〃 〈국어 A형(1)〉
17:00 〃 〈영어 A형(1)〉
18:00 탐스런 〈동아시아〉(재)
19:00 〃 〈생활과 윤리(1)〉
20:00 〃 〈생활과 윤리(2)〉
21:00 〃 〈생활과 윤리(3)〉
22:00 고교특강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2)〉(재)
23:00 세계의 아이들
23:5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EBS플러스2

07:00 하하볼의 상상놀이터(1)~(3)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08:30 나의 성공비결
09:00 즐거운 수학 EBSMATH
09:10 TV 중학 1학년 〈국어①②〉
09:50 〃 〈수학① (상)〉
10:30 〃 〈수학① (하)〉
11:10 〃 〈역사①〉
11:50 중학 2학년 〈영어〉
12:30 〃 〈문학〉
13:10 중학 ⓔ포스 영문법 ①
13:50 중학 ⓔ포스 영문법 ②
14:30 중학 ⓔ포스 영문법 ③
15:10 초등 기말 학업 성취도 평가 〈국어 3-2〉
15:40 〃 〈국어 4-2〉
16:10 〃 〈국어 5-2〉
16:40 〃 〈국어 6-2〉
17:10 스쿨랜드
17:20 중학개념 끝장내기 〈국어〉
18:00 〃 〈사회〉
18:40 원더풀 싸이언스(1)(2)
20:20 EBS 문화사 시리즈 〈제3편 지금도 마로니에는〉
21:20 등업신공 〈수학① (하)〉
22:00 중3 퍼펙트 체크업 〈수학 3-2〉
22:40 중학 3학년 〈영어 3-2〉
23:20 〃 〈문학3〉
24:00 EBSe 생활영어
24:30 나의 성공비결(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8일(음 10월 16일 戊子)

子 36년생 사소한 것으로 무너질 수 있다. 48년생 겉으로만 풍성할 뿐이지 실속은 약하다. 60년생 참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자. 72년생 타당성 검사가 필요 하느니라. 84년생 잠자코 있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59, 50

丑 37년생 겉으로 나타난 것만으로 판단하려들지 말라. 49년생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겠다. 61년생 앞당겨 질 수 있다. 73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결단은 바람직하다. 85년생 침착함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4, 61

寅 38년생 처세만 잘 한다면 좋은 일이 생긴다. 50년생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백 번 나을 것이다. 62년생 우선 편리해야 하느니라. 74년생 결실을 목전에 두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3, 22

卯 39년생 상대를 존중해 줘야 성사 되겠다. 51년생 부담스러운 의뢰를 받을 수도 있는 날이다. 63년생 바짝 뒤쫓으면 가까스로 따라 잡을 수 있겠다. 75년생 상대가 보류 한다거나 지연시키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68, 45

辰 40년생 잠시 숨을 돌릴 겨를이 필요하다. 52년생 뜻은 좋지만 현실 앞에서 노심초사할 수다. 64년생 상대에 대한 의심은 오해일 뿐이다. 76년생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후회하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51, 14

巳 41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된다. 53년생 정황을 인식하고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65년생 부족한 듯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을 것이다. 77년생 엉켰던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3, 77

午 42년생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54년생 편리함만을 추구한다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66년생 노심초사하게 되는 형상이니라. 78년생 의외로 얻는 바가 많고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1, 83

未 43년생 상당히 타격적인 상황에 놓이리라. 55년생 즐기면서 임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67년생 약간 지연되기는 하나 목적은 달성 되겠다. 79년생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해둬야 할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5, 32

申 44년생 고정 관념을 버린다면 새로운 현상을 읽을 수도 있느니라. 56년생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68년생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전연 다른 상태가 되리라. 80년생 상도를 지키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63, 06

酉 45년생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니라. 57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실함에 직면하게 된다. 69년생 말을 아끼지 않으면 지난날의 공로가 무너진다. 81년생 베풀고 포용한다면 많은 이들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54, 85

戌 46년생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다. 58년생 현재는 복잡하더라도 머지않아 자리 잡게 될 것이다. 70년생 바쁜 일로 동분서주 하다가 하루가 다 간다. 82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하리라. 행운의 숫자 : 26, 89

亥 47년생 행해야 할 바를 소홀히 한다면 크게 후회하게 된다. 59년생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71년생 지금은 감수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83년생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면 큰 낭패를 보리라. 행운의 숫자 : 72, 5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고향 사투리땜에 인기 얻었당께요"

'응답하라 1994' 해태 역 전라도 출신 손호준

"'해태'라고 알아봐 주시는 분이 갑자기 많아져서 적응이 안 돼요."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에 '해태' 역으로 출연 중인 손호준(29)은 연기 생활 10년 만에 받아본 갑작스러운 관심에 얼떨떨하기만 하다고 했다.

준수한 외모에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첫 회 등장하자마자 시청자의 시선을 붙든 이 배우가 실제로 전라도 출신에, 10년 가까이 무명 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다소 놀랍다.

화제의 드라마 주요 배역으로 불현듯 안방극장에 나타나 여심을 흔드는 손호준을 바쁜 촬영 일정 가운데 최근 광화문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얼마 전에 정말 편하게 트레이닝복 입고 세수도 안 하고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한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바나나 우유를 주시면서 '잘 보고 있다'고 '사인해 달라'고 하시는데,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다니는 건 조금씩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운으로 찾아온 드라마 응사 출연은 오디션을 통해 이뤄졌다. 작년 12월 군 복무를 마치고 숨 돌릴 틈 없이 오디션을 봤다.

"(신원호) 감독님이 제가 나온 영화 '바람'을 재미있게 보셨다고 해요. '응답하라 1997' 캐스팅 때도 저에 대해 궁금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 군대에 있었죠. '바람'에서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경상도 출신인 줄 아셨다는데, 오디션에서 실은 전라도 출신이란 걸 알고 '해태'를 생각하셨나 봐요. 당시엔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은 채 '응답하라 1997' 대본을 전라도 사투리로 바꿔 읽게 하셨는데, 그 느낌을 재미있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전작에서의 인상 깊은 연기와 함께 그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점이 '해태' 캐릭터 탄생에 상당한 영향을 준 셈이다. 그는 직업 군인인 아버지 밑에서 이사를 많이 다녀서 태어난 곳을 정확히 모르지만, 전라도 광주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했다. 서울 생활 10년에 사투리와 억양을 많이 다듬은 상태여서 사투리를 되살리려고 다시 고향을 찾아야 했다.

"감독님은 '해태'가 순천에서 막 올라온 느낌을 원하셨어요. 특히 '윤진'이로 나오는 도희가 실제로 고향인 여수에서 올라온 지 1년도 안 된 상태여서 억양이 강했는데, 감독님이 '너, 윤진이한테 사투리 묻힐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지난 3월쯤 캐스팅 확정되자마자 광주로 내려갔어요. 3개월 정도 지내면서 친구들이랑 사투리 훈련을 했죠. 드라마 끝나고 서울말로 돌아오려면 힘들 텐데, 큰일이에요(웃음)."

극중 한때 윤진이를 두고 '삼천포'(김성균 분)와 삼각 구도를 이루다가 윤진의 남편이 삼천포로 밝혀지고 '해태'는 약국에서 콘돔을 사다 윤진에게 들켜 '섹스 마니아'라는 놀림을 받는 에피소드가 펼쳐져 웃음을 줬다.

그는 극중 1994년에 대학에 입학한 해태와는 다른 세대지만, 스무 살에 서울에 처음 올라와 느낀 낯설고 두려운 마음은 100% 공감한다고 했다.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적응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는 드라마랑 비슷한 게 많아요. 1화에 나온 지하철 장면은 제가 정말 똑같이 겪은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 승차권을 뽑아가진 않았지만, 처음에 700원짜리 지하철 승차권이 개찰구에 넣자 다시 나오는 걸 보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서울 어디든 다 돌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구나' 했죠. 그래서 도착한 역 개찰구 앞에서 승차권을 꽂고 또 나오겠거니 기다리며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가 안 나오니까 역무원 아저씨한테 '기계가 내 승차권을 먹었다'고 얘기했죠. 그분이 웃으면서 '지방에서 올라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서 이번에 그 장면 찍으면서 많이 웃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는 광주 친구인 동방신기 유노윤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광주 극단에서 연극을 했는데, 극단에 함께 있던 친한 후배가 윤호와 절친한 친구여서 셋이서 항상 뭉쳐 다녔어요. 윤호랑 서울에 비슷한 시기에 올라와 같이 굶고 힘든 시기도 같이 지냈는데, 윤호가 먼저 잘 됐고 이후엔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방송 연기를 해보지 않겠냐면서 매니저를 소개시켜줬죠."

그는 첫 기획사에서 신인들을 띄울 목적으로 만들어준 3인조 아이돌 그룹 '타키온'에 멤버로 참여해 잠깐 활동하기도 했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곧잘 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은 오로지 배우였다.

"지금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고요, 내가 얼마나 그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고 영화든 드라마든 많이 하고 싶어요. 지난 10년 동안 많이 쉬면서 체력을 보충했으니까 이제는 뛸 일만 남았죠(웃음)." /연합뉴스

박재정, '슈퍼스타K 5' 최종 우승

박재정(18·사진)이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5'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재정은 15일 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박시환(26)을 제치고 최연소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우승자는 심사위원 평가 점수와 사전 온라인 투표 및 시청자 생방송 문자 투표 결과를 합해 가려졌다. 결선에서 박시환과 박재정은 기존 노래 두 곡을 부르는 '라이벌 대결'과 유명 작곡가들이 새로 만든 노래를 부르는 '우승곡 대결'로 승부를 겨뤘다.

첫 번째 대결에서 먼저 무대에 선 박시환은 고(故) 김광석의 '그날들'과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불렀고, 박재정은 김동률의 '사랑한다는 말'과 동방신기의 '주문-MIROTIC(미로틱)'을 선보였다. 이어 '우승곡 대결' 순서에서는 박시환이 신사동호랭이의 '내사람'을, 박재정이 황세준의 '첫눈에'를 불렀다.

박재정은 "어머니와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실 제가 너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더 배우고 성장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제 목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승으로 박재정은 상금 5억원과 데뷔 음반 제작의 기회, 중형 승용차 등을 받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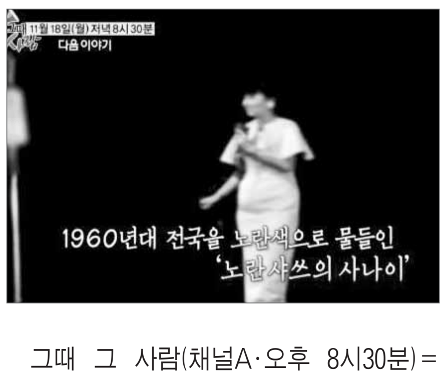
TV 하이라이트

우도 해녀의 따뜻한 밥상

요리 비전(EBS·오후 8시20분) = 제주도 옆에 자리한 아름다운 섬 우도. 수십 년의 세월을 바다에서 사는 해녀들의 삶. 춥고 고단해도 직접 뛰어드는 제주도, 우도의 바다에는 풍부한 해산물이 있다. 오랜 세월을 바다에서 보내 이제는 할머니라고 불리는 가녀린 몸으로 20kg이 넘는 그물을 지고 나르는 해녀들.

물질하고 돌아와 지친 몸을 데워주고, 든든하게 먹는 '궁둥저배기'와 함께 해녀들이 음식을 맵고 짜지 않게 먹는 이유도 들어본다. 톳, 소라, 성게, 미역을 따자마자 만들어, 보기만 해도 싱싱하고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꼭 해준다는 음식들. '톳 무침', 잡아서 바로 만들어 내는 '소라회', '소라 성게 젓갈', '성게 미역국'까지 생명력 넘치는 김순진 어머니의 해녀 밥상을 만나본다.

한명숙, 50년 만의 신곡



그때 그 사람(채널A·오후 8시30분) = 1961년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든 노래, 바로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 한국 전쟁 이후 암울했던 60년대에 경쾌한 멜로디의 이 노래는 국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충분했다. 60년대 세상을 노랗게 물들인 가수 한명숙은 당대 은막의 스타 신영균, 엄앵란과 함께 영화에까지 출연했다.

그야말로 60년대는 한명숙과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 시대였다. 데뷔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무대에서 빛이 나는 한명숙. 그렇다면, 무대 뒤 한명숙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한명숙의 집을 찾아간 제작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안타까운 그녀의 현재 생활. 11월, 50년 만에 한명숙의 신곡이 발표된다. 허스키한 목소리에 어울리는 노래 '바람이어라'는 어떤 곡일까.

아프리카 희망 학교 만들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오후 5시35분) = 지독한 가난과 끊이지 않는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이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교육뿐이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꿈을 전하기 위한 SBS의 '희망학교 100개 건립 프로젝트'.

현재까지 아프리카 전역에 28개의 학교가 완공되었고, 20여개의 학교가 지어지고 있다. 특히 탄자니아의 마엔델레오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없었던 나카상궤 지역에 처음으로 생긴 중등학교로 지식을 알려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구심점 역할까지 해주고 있다. 학생들의 미래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있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선생님들이다. 이들이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다.